

# 대학 새내기를 이끄는 교양서들

## 각 대학출판부마다 폭넓은 기획 시리즈로 신입생들에게 선포

교수들의 논문을 묶어내거나 교재를 펴내는 소극적 활동을 보여준 대학출판부들이 새학기를 맞아 신입생과 대학생들을 위한 교양물을 여럿 선보였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대학출판부들은 소수의 학자들을 독자층으로 하는 학술도서 발간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최근 발간된 단국대 출판부의 <세계문학100선 총서>, 건국대 출판부에서 펴낸 <문학의 이해와 감상> 시리즈, 외국어대 출판부의 <세계문학총서> 등은 전문성보다는 신입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획이다. 특히 '문학'이라는 가교를 이용해 입시지옥을 거처온 새내기들을 대학문화와 연결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양대의 <한국전통문화총서> 등 신입생이나 재학생이 관심을 가질 만한 교양물을 기획하고 있는 대학출판부의 기획시리즈들을 소개한다.

### 단국대 <세계문학100선>

단국대 출판부는 언어권별로 각기 100편의 대표작을 엄선해 세계의 문학을 조망하는 <세계문학100선 총서>를 펴냈다. 대학 내의 각 언어권 문학 전공자를 동원해 문학작품의 성과를 인정받은 100편의 작품을 뽑아 간추렸다. 번역된 텍스트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작품을 중심으로 골랐다.

이번에 출간된 <영국문학100선>과 <미국문학100선>은 단국대 영문과의 이용훈 교수가 집필했다. 조지 오웰, 서머셋 모, 오스카 와일드 등의 영국작가와 아서 밀러, 윌리엄 포크너, 존 스타인벡 등의 미국작가 작품을 담았다.

작품 내용과 해당 작가를 두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반 분량으로 소개했는데, 책이라고는 교과서가 고작이었던 신입생들에게 깊고도 넓은 문학의 세계를 열어 보인다. 영미 문학에서 범위를 넓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스페인어권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 한국문학도 다룰 계획이다. 다음 작업으로 서반아어과 고혜선 교수가 <스페인어문학100선>을 준비하고 있다.

단국대 출판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계 문학을 다이제스트한 책은 많아도 지역별·언어별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다룬 경우는 드물었다고 의의를 자평했다. 각 분야 전공자인 교내 필진을 활용해 대중성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것도 특징의 하나. 신입생들의 전공공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한편 잘 알려진 고전 원본을 번역한 고전

시리즈도 선보였다. 신입생 필독 고전목록이던 어김없이 올라 있는 <일리아스>와 <오딧세이>가 희랍어 원본을 텍스트로 번역되었다.

### 건국대 <문학의 이해와 감상> 시리즈

95년부터 건국대 출판부가 발간한 <문학의 이해와 감상> 시리즈도 3월중에 8권이 발간돼 100권을 채운다. 이 시리즈는 국내외를 망라해 문학사에서 돋보이는 작가들을 선정하여 생애와 작품세계를 다룬다. 1권 <도스토예프스키>(정창범 지음)를 펴낸 이래 현재까지 모두 92권을 출간했는데, <미하일 솔로호프> <알베르 까뮈> <정지용> <한용운> 등 흥미로운 작가들이 망라되어 있다.

3월중에 나올 책은 <강경애>(이상경) <나도향>(윤홍로) <하이네>(김수용) <셰익스피어>(변창구) <박목월>(김형필) <이상>(이승훈) <이효석>(이상우) <김기림>(김용직) 등 모두 8권이다. 신입생들에게 친숙한 국내외 작가와 강경애·김기림처럼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작가론이 나온다. 필자가 교내 교수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국 46개 대학에서 뽑은 전공교수와 현역 평론가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 시리즈는 내용뿐 아니라 문고판 크기와 저렴한 가격으로 외적인 면에도 신경을 썼다. 95년에는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제35회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해 내용의 충실함도 검증받았다. 건국대는 <철학의 이해와 탐구> 시리즈도 기획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의 교양물로 현대 철학자들의 생애와 핵심사상을 조명하게 된다.



대학출판부가 새학기를 맞아 다채로운 기획 교양물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단국대 <세계문학100선> 건국대 <문학의 이해와 감상> 한국외국어대 <세계문학총서>.

### 한국외국어대 <세계문학총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24개 언어권을 학과로 포괄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 출판부는 학교 특성을 살린 기획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96년부터 출간한 <세계문학총서>는 각 언어권의 대표작품을 번역했는데, 체코 작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외에 현재 나와 있는 10권이 모두 국내 초역이다. 브라질·태국·루마니아 등의 언어권을 포함하고 있어 영미문학에만 익숙했던 신입생들에게 더욱 관심을 끌 모양이다.

올해 초에는 인도네시아의 단편작품을 모은 <자카르타 외>(뚜틸라와티 치트라와시타 지음), 독일 작품 <짜짓기>(페터 슈나이더 지음), 터키 작품 <비와 토지>(네카티 꾸말리 지음) 세권이 출간되었다. 대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한발 내딛는 일이라면 <세계문학총서>는 세계 곳곳의 문화와 역사, 개인의 삶을 간접체험할 수 있는 읽을거리로 신입생들의 구미를 당긴다. 앞으로 중국·아랍·베트남·벨기에·아프리카까지 24개 언어권의 문학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총서는 대형서점에서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외대만의 특성과 대중적 관심을 동시에 만족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중평이다.

<실용외국어회화> 시리즈도 한국외대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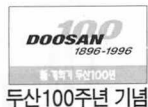
판부의 야심찬 기획물이다. 올해 초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어, 폴란드어 회화책을 출간했고, 태국어와 러시아어 기초회화가 곧 출간된다. 신입생들에게는 처음 접해보는 외국어 공부의 맛보기로 제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 이화여대 <여성·장애인 분야 책>

94년 이화여대 출판부에서 낸 <며느리에게 주는 요리책>(장선용 지음)은 대학출판부도 10만부 이상의 베스트셀러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책은 '요리를 통한 가족문화'를 다루어 여느 대학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책으로 성공을 거둔 예. 97년에도 다른 대학에서 등한시하는 분야의 출판물을 펴내는데 치중할 계획이다.

▲여성학 ▲여성·남성심리 ▲종교문화 ▲장애인 ▲어린이 등 다섯 분야의 출판물을 통해 학교라는 작은 세상에 갇혀 있던 신입생들에게 소외된 이웃의 모습을 보여줄 생각이다.

96년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가부장제 이론> <양성평등과 한국의 법체계> <중증 장애인의 교육과 재활> <사랑하는 엄마> 등을 펴냈는데, 올해도 학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관심을 만족시켜 줄 책들이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79년부터 펴낸 <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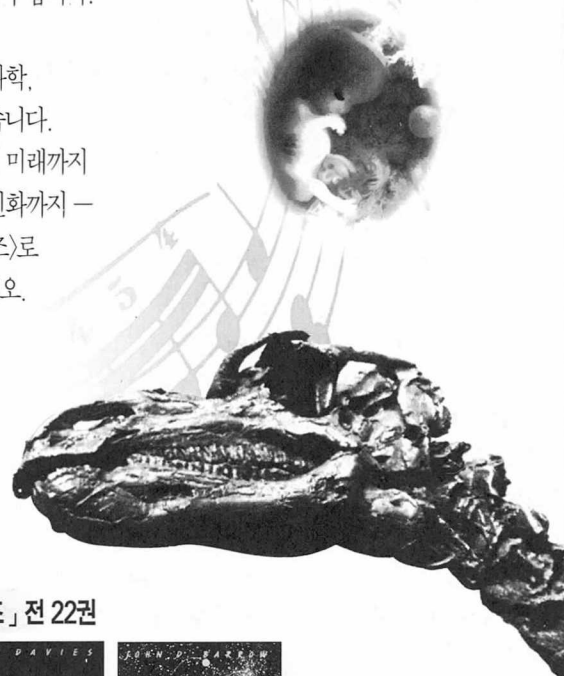


두산100주년 기념

## 어제, 펫 매시니의 재즈 기타에 취했다면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理性에 빠져보는거야!

### 자유로운 理性을 위한 과학교양서, <사이언스 마스터즈>

감성만 자유롭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라면,  
理性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이언스 마스터즈 -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  
理性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인류의 기원에서 우주의 미래까지  
세포의 진화에서 성의 진화까지 -  
이제, <사이언스 마스터즈>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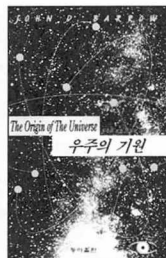
###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전 22권



**① 에덴 밖의 강**  
유전자로 본 진화의 메커니즘  
과연 인류는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한 것인가?  
유전자의 결합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의 분리는?  
리처드 도킨스 지음



**② 마지막 3분**  
지구 최후의 운명에 관한 시나리오  
2126년 8월 21일,  
거대한 혜성과 지구가 부딪친다.  
남은 시간은 3분. 지구의 운명은?  
폴 데이비스 지음



**③ 우주의 기원**  
우주 최초의 흔적에 대한 탐사  
코넬리우스가 전한 우주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주의 시작 초팽창, 오늘날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의 기원을 찾아간다  
존 배로우 지음



**④ 인류의 기원**  
화석 사냥꾼이 들려주는 최초의 인간 이야기  
인류는 과연 20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인으로 부터 시작되었는가?  
6만 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는?  
리처드 레이크 지음



**⑤ 원소의 왕국**  
화학 원소들의 나라로 떠나는 여행  
어떻게 주기율표를 통해 우주 만물을 이해할 것인가? 물질의 핵심으로서의 신나는 여행이 될 것이다  
피터 앳킨스 지음



**⑥ 자연의 수학적 본성**  
아름다운 관념의 우주, 수학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눈송이는 왜 모두 6각형인가?  
효황이는 얼마나, 표범은 얼마나 무늬가?  
이유는 무엇인가?  
수학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이언 스테이트 지음



정가: 각권 6,800원  
※ 계속 발간 됩니다.

독산동아  
영업 (02)861-4818 / (02)863-5608

### 한국대출판부는 언어권별로

### 대표작품 100편을 뽑아

### 간추린 <세계문학 100선>을,

### 한국대출판부는 국내외

### 문학가들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 다룬 <문학의 이해와 감상>

### 시리즈를, 이밖에 한국 외국어대와

### 이화여대 출판부 등

### 각 대학 출판부마다 특성을 살린

### 폭넓은 교양 기획시리즈를

### 펴내고 있다.

문고)는 '지난 세대의 서가에서 새 세대들이 읽어야 할 책'을 골라 펴냈는데, 세계관을 정립할 시기의 신입생들에게 유익한 책이 모여 있다.

### 한양대 <한국전통문화총서>

한양대 출판원 역시 <한국 전통문화 총서> 1백권 발간이라는 남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 국문학·춤·사상·역사·음악·건축학·의류학·전통과학·미술·민속학 등 우리 문화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21

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민족문화의 주체를 세우고 우리 문화 일반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를 위한 작업이 되리라는 설명.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들을 만족시켜줄 친절한 해설서가 될 듯하다.

한양대 출판원은 이 총서를 고려대 출판부가 펴낸 <한국문화사대계>의 학술적 성과와 대원사가 기획한 <빛깔있는 책들>의 친밀감을 결합한 책으로 구상하고 있다. 세계 문화에 대한 교양총서로 일컫는 프랑스의 <디스커버리 총서>와 비견될 만한 책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 서울대 <독일학연구소 총서>

96년에 신간 70종 발간으로 가장 왕성한 의욕을 보여주었던 서울대 출판부는 97년도에 1백여종을 발간할 예정이다.

그간 <한국학총서>나 <대학교양총서> 시리즈 등 굵직한 기획물에 주력해 왔는데, 신학기를 앞두고 독일학연구소 총서인 <기적의 진실과 환상 속의 현실>을 펴냈다. 이 책은 현실과 환상을 결합시킨 독일의 민속동화와 창작동화를 담았다. 동화라는 형식을 통해 철학적 주제와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 신입생들이 읽기에 적합하다. 두권으로 기획, 2권이 먼저 나오고 1권이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 이현주 기자

### 출판계 소식

## 출협 창립 50주년 기념잔치 성황

3월 15일 세종문화회관서... '책, 우리의 미래' 주제로 열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가 지난 3월 15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책, 우리의 미래'란 주제 아래 진행된 1부 기념식에서는 47년 3월 15일 창립된 이후 50년 동안 출협이 걸어온 길을 10년 주기로 요약 보고하고, 초대 김장집 회장(작고)을 비롯, 민장식 신재영(작고)·변영경·정진숙·이병준·한만년·민영빈·임인규·권병일·김낙준씨 등 역대 회장들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정부와 국회, 문화관련단체, 출판계 인사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어진 2부 축하연에

서는 미래 출협의 발전을 기원하는 축하 창(唱)도 베풀어졌다.

### 출판문화학회 제6회 학술포럼

출판문화학회(회장 전영표)는 지난 2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출판 잡지의 구조적 상황과 원형 연구>의 주제로 제6회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도서용지의 원형과 규격의 국제화>(전영표) <문학도서장정의 변화와 특성>(박암중) 등 7인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